

'98 방산(수출)업체 간담회 열려

수출 활성화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



◀문일섭 방위사업실장, 이원형 획득개발관 등 정부관계관과 배일성 상근부회장 등 업체 대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산물자 수출지원 대책 및 업체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방산업체 간담회시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과, 방위 산업 전문·계열화제도 정비, 부품 국산화 개발품목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국방부와 함께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간담회를 7월 7일 국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일섭 방위사업실장, 이원형 획득개발관 등 정부관계관과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방산물자 수출지원 대책 및 업체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98년 해외파견 예정인 무관 18명도 참석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생산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방산물자 수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토론에 앞서 국방부측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전산자료 제출, 방산 수출 증대 및 수출 법령 보완 개정 추진, 방산 수출 제한국,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 국제계약시 민간 전문인력 활용, 절충교역 업무 개선, 공시 보고 제출시 회계법인 자문, 방산물자 군직 정비용 수입 부품 관세 감면, 기술용역업무 규정 개정, 국방 품질시스템 규격 개정 및 인증 추진, 국제 품질보증협정 활용 등을 공지하였다.

업체측에서는 납기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야간 근로 수당 원가 인정, 착·중도금 수령시 연대보증 애로점 해소책 마련, 해외파견 무관의 수출 지원 임무 강화, 발주 물량 확대, 환차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정부와 방산업체가 방산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지원방안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토의하고 방위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LG정밀, 잠수함용 첨단 어뢰 개발

94% 국산화로 외화절감 및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

LG 정밀(대표 宋在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협력하에 국내 최초로 적의 수상 및 수중전력을 능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성능의 어뢰 개발에 성공했다.

이 최첨단 어뢰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자동탐지해 추적,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도어뢰로 선진국의 어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었으며 국산화율 94.3%로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품으로 이루어졌고 첨단핵심기술이 자체 개발되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어뢰 및 유도무기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제원 및 성능

구 분	제원 및 성능
직 경	19인치
길 이	6m
중 량	1,100kg
속 도	35노트 (시속 63km)

「백상어」로 명명된 이 어뢰의 대당 가격은 독일의 슈트급 어뢰가격인 22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며 TNT 370kg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어뢰는 미국·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운용 및 판매하던 수중유도무기로, 금번 국내에서 설계기술/전자제어기술/탐지기술/고성능모타생산기술 등을 국산화하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설계·생산 능력을 한단계 높이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힐스방식을 채택해 개발소요기간(8년)과 개발비(3백억원)를 크게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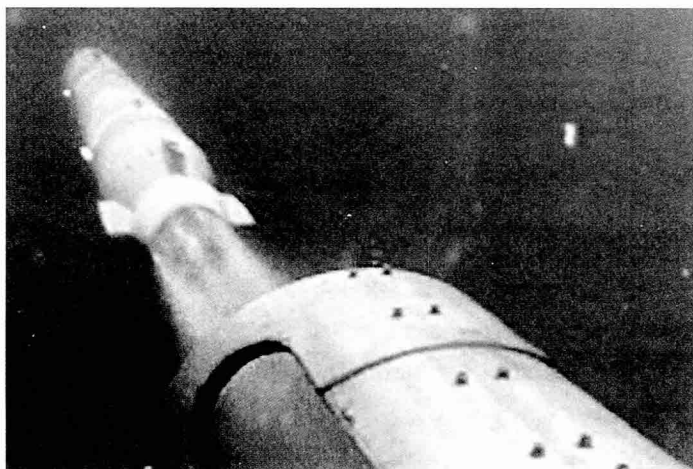
미국의 MK48과 독일의 슈트급 어뢰는 각각 24년에 1조원과 10년에 4천여억원이 소요됐다. 힐스 방식은 육상에서 수중의 모든 환경을 설정해 시험하는 최신 모의시험 기법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유도무기에 관한 고도의 설계기술과 전자제어기술 및 탐지기술 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산 잠수함에 국내 개발 어뢰를 무장함으로써 해외에서 구매하던 것에 비해 직접적인 획득비용을 약 2천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등에 이어 독자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첨단 어뢰는 국내 고유 모델로서 해외판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우리의 능력으로 무기체계를 개발

▼첨단어뢰의 수중발사장면



함으로써 우리 해양환경에 적합한 해군 전술 발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방산업체 활성화라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제부터 우리군은 “국산 잠수함에 국산 어뢰를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해양을 수호한다”는 가슴 부듯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LG정밀은 적 AN-2기를 탐지하는 저고도 탐지레이다와 적의 도청 및 감청이 불가능한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에 장착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전자전 장비에 이어 첨단 어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적의 육·해·공 도발과 침투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양산하게 됐다.

LG정밀은 레이다를 비롯한 통신, 전자전, 지휘 통제, 유도무기, 수중무기 등 첨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 장비를 속속 독자개발함으로써 기술자립은 물론 수입대체효과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LG정밀은 지난해 저고도 탐지레이다의 독자 개발로 국방부가 수여하는 국방과학연구개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 최초로 3개부문상을 석권한 바 있으며, 95년 항공기용 전자전장비가 최우수상, 88년 해상용 전자전장비와 92년 차기 FM무전기 등으로 연구개발 우수상만 5번을 수상, 방산장비의 핵심인 연구개발력을 인정받아 왔다.

‘국방개혁 5개년 계획’ 태동

국민 요구에 부응한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 부에서는 국방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6일 안병길 국방차관 주재하에 ‘국방정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9일에는 천용택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군 기무사령관 등 주요지휘관 및 관계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군무회의(軍務會議)’를 개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 국방부 실무 부서 요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개혁안은 내·외부로 부터의 공감대를 얻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14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외부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작성되었으며, 군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2일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국방개혁은 군사적으로 당면한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쟁억제 및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군구조 조정, 방위력 개선, 인사 및 교육제도 발전,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전반에 걸쳐 효율성·경제성·전문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중 방위력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과거 몇 차례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어 무기체계 획급개발과 관련한 조직 및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특단의 개혁조치가 단행될 계획이다.

금번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 기초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업 추진시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진 조

직과 절차로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그동안 방위력개선사업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하는데 미흡했으나, 금번 개혁에서는 이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및 기술이전 등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력 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성이 모호하면서도 다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각종 협의회와 위원회를 폐지 및 축소했으며, 현재 38개 단계의 복잡한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24개 단계로 단축하여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둘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시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관리 등의 기능이 비리방지를 위해, 견제 위주로 분산된 것을 통합하여 사업별로서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사업실명제'를 실시한다.

셋째, 방위력개선사업을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진 조직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획득본부'를 국방부내에 설치한다.

넷째, 조달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달계약(조달본부)과 품질보증(국방품질연구소) 기능을 통합한다.

다섯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은 전담체제화하고 여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산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이 그동안 보호장막속의 방위력개선사업이 국민앞에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부관련 부서와 국회에서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수조달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달불신 잠재요인 제거와 규제완화 및 열린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하였다.

- 조달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조달등록제도 및 업체실태조사를 전면 폐지, 조달정보 공유체제 구축

- 원가산정 및 계약에 대한 실명제 실시

- 정확한 가격정보 수집을 위해 가격자료 D/B 구축

- 국제계약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법률회사 등 민간 전문가 적극 활용

- 상용품 구매 확대 위한 국방규격 완화

- 일반 상용물자 구매는 조달청 이관

이와함께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경영혁신을 통한 열린 국방을 실현토록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군수품 구매방법 전환으로 외화 및 국방예산 절감

CH-47D 헬기 T55-L-712 엔진 개조 통해

국방 부는 외화 및 국방예산의 절약으로 국가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 관리개선, 해외도입품 국내개발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중에

있다.

이에따라 금번 CH-47D(치누크)헬기 예비엔진의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외화 및 국방예산의 절감은 물론 첨단 항공정비기술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CH-47D 헬기엔진은 FMS 미취급품목으로 美 제작사(ALLIED SIGNAL)에서 제작 공급하는 T55-L-712S/SB 엔진을 완성품으로 상업 조달구매가 불가피하였으나, 美 육군이 사용하는 T55-L-712 엔진을 FMS로 저가 구매하여 삼성항공에서 T55-L-712S/SB 엔진으로 개조하는 계획이다.

삼성항공에서 美 제작사의 기본설계 개념에 따라 AIR FLOW와 냉각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엔진실린더를 포함하여 46개의 주요부품을 개조하게 된다.

삼성항공은 지난 '95년 제작사로 부터 T-55 계열 엔진에 대한 창정비, 개조 등의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료를 확보하였고, 최근 개조엔진에 대한 712S/SB 엔진 NAME PLATE부착을 인정 받았다.

구매방법 개선은 금년 5월 육군 군수사 소속

경기태 군무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동월 군수국 주관하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연구소, 삼성항공 등의 유관부서와 관련업체가 참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제성, 기술성이 인정되어 구매방법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육군군수사에서 '98도입품 3대에 대한 오퍼를 수락, 조달본부에 요구하여 7월에 美 국방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대효과로는 막대한 국방예산 절감과 외화 낭비를 방지하며 첨단분야인 항공정비기술의 축적으로 항공산업의 기술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제3국 정비물량의 수주도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 외화 및 국방예산에 대한 절감 가능요소를 발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 육군의 대형기동헬기와 동일 기종으로 한국군에서 운용중인 CH-47D Chinook



한사랑 민족통일진흥원 소개

방산 관련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

한사 랑통일진흥원(이사장 金學玉 예비역 중장)은 국토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출범한 순수 비영리 법인으로 산하에 연구소와 연수원 그리고 후원회를 두고 있다. 1년 남짓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통일안보문제의 심도있는 연구 및 홍보는 물론,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국민화합과 시민의식혁명을 겨냥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사랑 시민교실' '한사랑 연사은행' '한사랑 민족학교' 등 3가지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는 '한사랑 연수원'의 활동상이 단연 두드러진다.

한사랑 시민교실 - 학부모와 청소년 그리고 친목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일 1회 몇 시간 단위의 교양 강좌를 실시 중이다. 그동안 60여회에 걸쳐 2천여명을 연수시켰다.

한사랑 연사은행 - 임양택, 강신돈, 신용수, 조용훈 교수 등 애국심과 실력 그리고 철학이 남다른 각계인사 381명을 객원 또는 초빙 교수로 위촉, 강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연사은행을 통해 정신교육을 받은 인원이 321회에 걸쳐 수천명에 이른다.

한사랑 민족학교 - 공직자와 산업 근로자를 주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3박 4일 일정의 연수를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산업지도자 과정을 비롯하여 목표관리 과정, 리더십 과정 등 78개 과정을 다루는데, 흥미·보람·휴식의 3



▲ 한사랑 민족학교의 공직자 연수 광경

박자를 갖춘 양질의 교육 효과에 결들여, 노동부 지정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점이 작용, 각계 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10여회에 걸쳐 1천5백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앞으로는 전역예정 군간부와 방산분야 종사자들의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IMF 체제하에서 국방비 절감으로 인한 예산 축소와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방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유익하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한사랑민족통일연수원은 주기적인 군장병 위문활동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백혈병 어린이 등 불우이웃돕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남북이산가족 교류협회의 회원으로 동참,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일역을 맡고 있다. 그밖에도 '하나로 우리로'를 격월간으로 발행, 후원회원과 유관단체 임직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 교육신청 : 한사랑민족학교 (02) 571-1988